

# 이슬람 신앙 Faith of Islam

학압두 박사 저(Dr. Abdul Wahab Zahid Haq)

**<http://www.quran.or.kr>**

<http://www.quran.or.kr>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신앙  
Faith of Islam

학압두 박사(Dr. Abdul Wahab Zahid Haq) 저

무프띠 선교사  
아부 바끄르 알 시디끄 전주 이슬람 성원의 이맘  
MP: 018-610-1483  
FAX: 063-243-1483  
Email: [zahid41@maktoob.com](mailto:zahid41@maktoob.com)  
전라북도 전주시 우체국 사서함 127 호, 560-600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혜를 얻는 신앙인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 여성은 인류의 어머니이자 선생님이다. 미덕을 갖춘 여성은 가정과 사회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신다면 먼저 그에게 종교를 이해하도록 인도하신다.
  
- 오 하나님이지여, 저에게 많은 지식을 부여 하시오며 저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메시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오며 제가 진리를 말하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의 스승님과 저의 부모님과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간구합니다. 아민

목차

머릿말

역사를 통해 본 유일신 사상

다신주의 철학

제 1 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속성

유일신 사상

생명의 속성

지식의 속성

권능과 의지

창조의 속성

말씀의 속성

듣고 보시는 속성

천사에 대한 믿음

천사의 존재

천사의 본성

천사의 임무

진

성서에 대한 믿음

토라

자부르

인질

성 꾸란

하나님의 꾸란 보호

선지자와 사도

제 2 장

부활의 세계

바르자크 세계와 영혼의 상태

무덤 안의 고문과 축복

나팔의 울림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천국에 대한 묘사

지옥에 대한 묘사

제 3 장

정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 신이 없으며 그 분은 동반자도 없으시며 그 분과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며 무함마드(ﷺ)는 그 분의 종복임을 증언하나이다. 하나님의 유일 신앙을 가져오신 그 분께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분의 가족들과 현명하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슬람 신앙 연구는 가장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신 사상 없이는 심판의 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 신앙은 인간 행복의 열쇠이며 심판의 날 안전하게 구원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하디쓰에 전하는 바로는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하나님 한 분 만을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라고 하셨다. 또한 <이슬람은 다섯 개의 기둥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라는 증언과 함께 기도를 행하고 회사를 하며 라마단 달에 단식을 행하고 신체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자는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초를 두며 곧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ﷺ)는 하나님의 사도이자 종복이다 라는 증언이다. 이것은 이슬람의 다섯 기둥 가운데 첫째 기둥이며 숭배 대상의 근본이다.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이러한 근본 믿음 없이 완성될 수 없다. 이슬람 신앙은 완벽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저한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일용할 양식을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실로 그 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 가신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신앙인은 자신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규율과 기둥들을 알아야 한다. 이는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으며 바른 길로 안내하는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규율이다. 이 개정판의 목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 신앙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올바른 길이다. 여기 나의 목표는 진지한 연구와 정직함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앞선 단행본을 출판한 이래 여러 한국인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이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 종교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을 제시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이슬람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나의 연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앞선 개정판들은 이미 재고가 없어 이번 출판이 시급하게 되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한 필수 정보도

<sup>1</sup>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하였다. 이번 한글 개정 번역 개정본이 한국인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전하는데 유용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광되신 하나님, 저의 과업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부모님과 저의 스승이신 아비 알 하사나 알 나드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온 우주의 주님께 저와 모든 무슬림들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아부 바끄르 알 시디끄 전주 이슬람 성원의 이맘 학압두 박사(Dr. Abdul Wahab Zahid Haq)

2002년 11월 8일 히즈리 1423년 라마단 3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 역사를 통해 본 유일신 사상 Monotheism Throughout the History

유일신 사상은 역사를 통해 숨쉬며 여러 시대와 지역, 여러 세대를 지나왔다. 때로는 인류가 이를 옹호하고 때로는 박해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구라는 별에서 여행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길이 굽어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또한 사탄의 증오를 만족시키고 사탄의 약속을 집행하게 하여 아담의 자손들로 하여금 사탄이 원하는 탐욕의 길로 빠져 들어 지옥의 길로 향하게 할 때마다 믿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아담의 자손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그가 맹세하기를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 하리라>라고 하였다. 인류는 약한 신앙을 가질 수록 쉽게 악마에게 점령당한다. 신앙의 불빛은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탄의 교묘한 술책과 독약의 화상을 경고한다. 실로 사탄과의 투쟁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자 그분의 대리자로 지상에 두신 이래 인류가 직면한 과제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높은 위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시고 이블리스도 같이 있었던 천사들과 함께 아담에게 절하라 명하신 그 시간부터 역사 이래로 긴 여정의 삶의 바다에 계속되어온 깊은투쟁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바까라 장 34 절에 말씀하시 <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하니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들 중에 있었도다> 하나님은 인간 아담의 자손에게 고귀함과 높은 자리를 허락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리자의 지위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시작이었다. <실로 나는 이 세상에 칼리파를 두리라>(성 꾸란 바까라장 30 절) 여기서부터 선과 악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구체화된 악의 징조가 보였다. 악의 요소가 이블리스의 영혼 속에 움직여 자신이 어떻게 저 이후에 창조된 인간에게 부복하느냐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블리스는 그가 다른 피조물들 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인사하라 무엇이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니 내가 그보다 낫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창조하시매 불에서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하매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 네가 내려가라 네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나가라 네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 이에 그가 말하길 부활할 때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라고 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네가 유예하는 자 가운데 있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 (성 꾸란 아이라프장 12-18 절)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3개의 피조물을 알 수 있다.

#### 1. 천사 2. 사탄 3. 인간

1. 천사: 어떠한 거부나 거역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완벽히 순종한다.

2. 사탄: 절대적 불복종과 자만심

3. 인간: 복종과 불복종이 섞여 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요소가 섞여 있으며 이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물질과 영혼을 합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물질은 인간을 물질의 본질인 추락으로 이끌며 음식과 마시는 것과 물질적 탐욕을 요구한다. 반면 영혼은 인간을 영혼의 본질인 고귀하고 고상하며 복종과 순수함의 세계로 이끈다.

이성- 영혼과 물질적 욕구의 차이를 균형 잡는 저울

인간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계속되는 갈등에 대해 물질과 영혼의 필요와 요구 사이에 균형을 잡아 줄 현명한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각 있는 행위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 이성으로 하여금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과 물질적 욕망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그 분께 영광이 있으소서)께서는 선과 악을 만드시고 그에 따라 자극, 유혹, 주의, 손해 등이 있게 하셨다. 인간은 창조된 이래 선과 악의 본성을 함께 지닌채 살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안내하셨다. 하나님께서 발라드장 10 절에 말씀하사<내가 인간에게 선과 악의 두 개의 길을 설명하였으니>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선과 악의 구별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알며, 하나님이 주신 영혼으로부터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 삼쓰 장 7-8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간과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사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하셨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게 청각과 시각과 언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발라드장 8-9 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했는가 또한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 주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 외 이러한 감각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선과 악을 인식하고 구별케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눈으로 시각을 허락하신 것은 그 두 눈으로 옳은 일을 보고 판단하여 선행을 하며 선행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함이다. 또한 두 눈으로 옳지 않은 일을 보고 판단하여 악에 대한 관념을 알도록 하게 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혀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을 말하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언하며 생각과 이성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표현하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말하기 위함이며 영혼과 몸의 감각으로써 주님께 복종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진실해지며 손발을 가지고 일을 행하며 보고 말할 수 있는 신체구조를 갖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써 망각의 본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움과 슬픔을 잇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의 삶에 있어 투쟁과 진지함의 길이 계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망각의 본성이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복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라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 망각의 본성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망각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게을리하는 이유를 야기시키고 영혼 속에 믿음의 요소가 약해져 영혼이 쾌락으로 기울고 욕망을 따르게 되며 이블리스에게 길을 열어 주어 그에게 유혹당하고 그를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블리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 망각의 본성을 취하게 하고 욕망의 본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인간에게 물질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게 한다.

이블리스는 하나님께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부터 이탈시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 하리라>(성 꾸란 아으라프 장 16-17 절) 이는 선과 악 사이의 강렬한 투쟁이다. 악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게 있으며 안전과 평화는 사도와 선지자들(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인도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본받아야 할 모범이며 그들을 따르는 것은 다신주의와 잘못된 길로부터 보호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성 꾸란 루끄만 장 31 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루끄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사 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지 말라 실로 하나님을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이나라>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는 것은 유일신 사상의 진리와 올바른 길에 장애가 되는 가장 첫번째 죄악이다.

다신주의 철학 Philosophy of Polytheism (Shirk)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성꾸란 니싸아 장 116 절에 말씀하사<실로 하나님은 그 분에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 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에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니라>

다신주의란 주님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동반자를 두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사람은 다신주의자이다. 다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는데 다른 동반자를 두고 계신다고 믿는다.

무신론이란 우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한다.

다신주의 철학의 시작: 다신주의의 시초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신사상이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들의 기념일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숭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 후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로 인식되고 이들의 행적은 아담과 노아(평화가 그분들에게 깃들기를) 사이의 기간에 기록되었다. 인간은 훌륭한 사람들을 신성시하고 사탄은 인간에게 그들이 불멸할 수 있게 동상을 만들도록 부추겼다. 사람들은 그들의 동상을 보호하고 신성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점차 사람들은 그 동상에 영광을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에서 벗어나 이들을 숭배하여 다신주의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자손들과 왕과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이런 관습을 널리 퍼뜨렸다. 하나님께서는 성 꾸란 노아장 22 절에 이들 우상의 이름들을 말씀하신다. <그들은 크나큰 음모를 꾸미며 너희 신들을 버리지 말라 왔즈도 쭈와도 그리고 야구쓰와 야우끄 그리고 나스르 신들을 단념해서는 아니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하디쓰에 전승하는 바로 이븐 카티르는 이들 이름들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석한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들 생전에 그들을 만났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선동하였다. 무함마드 이븐 딸하가 전승하는 바로는 이븐 압바스가 말하기를 이들은 노아시대에 숭배되었던 우상들이었으며 아구쓰와 야우크 그리고 나스르는 아담과 노아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추종자들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숭배하는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동상 자체까지 숭배하도록 선동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영광이 그분께 있으소서)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다. 실로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 본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한다. 무지한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절대자 주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분명한 예증도 소용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우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재앙을 주시므로써 시험하신다.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백성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라크의 바벨 백성들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거의 모든 도시들과 작은 마을까지도 각자의 우상을 섬겼다. 이 모든 작은 신들은 바벨에 놓여있는 마르텍이라고 하는 유일신에게 종속되었다. 마르텍은 바벨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이었다. 왕은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였으며 왕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봉급을 받는 군인이나 장관들을 거느렸다. 그들은 왕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였으며 왕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고 왕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러 동반자들을 생각해 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존재하시고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우주의 신이라고 주장한 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코우쉬의 손자이자, 카나의 아들인 남루드였다. 남루드는 바벨시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도 아브라함(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시대에 살았다. 남루드 자신도 다른 많은 백성들처럼 조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스스로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모세(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의 시대에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성 꾸란 까싸스장 38 절에 파라오에 대한 구절이 있다. <파라오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한

어떤 신도 내가 아는 바가 없나니> 파라오 자신은 조상들의 신을 섬기는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하였다. 성 꾸란 아흐라프 장 129 절을 보자.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본성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우주 안의 피조물인 행성이나 태양, 달, 나무와 돌, 그리고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일신을 믿었으나 나중에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유일신 사상이 점차 변화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영광이 그 분께 있으소서)께 동반자들을 두게 되었다. 철학자들은 빛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빛과 빛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숭배하게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빛을 숭배했던 철학자 제라드츠트는 “ 빛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과 불을 추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징표라고 생각했다. 또한 네 가지 신성한 것 즉 불, 공기, 물, 먼지를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빛을 숭배하는 규칙들을 정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를 제외하고는 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사막의 아랍인들의 다신주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별과 태양을 숭배하였다. 중국인들 또한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들을 숭배하였다. 인도의 점성학자들은 별을 숭배하였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도 제단과 사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조각상과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기 위해 특별한 철학과 규율들을 제정하고 제단에 희생물을 바쳤는데 특히 젊은이와 아름다운 소녀들이 희생물로 선호되었다.

우상숭배자들에게 무엇을 숭배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 우상들이 단순히 돌에 불과하며 그 돌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내면의 힘과 영혼을 숭배한다고 말한다. 이슬람이 아랍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처음 도래했을 때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들은 돌이나 별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준다고 믿었다.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부처 상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상 안에 숨겨진 비밀을 신성시하며 그 힘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완벽한 인간의 단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플라스틱이나 돌로 만들어진 예수의상이나 예수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예수 조각상 안의 영혼과 조각상이 표현하는 의미를 숭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의 육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창조하신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은 예수라고 불리는 인간의 몸에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마리아의 상을 조각하여 숭배하며 이는 그 신성한 영혼이 창조되었던 자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신성한 영혼을 숭배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 그들은 마리아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데 이는 마리아 상이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스런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예수의 탄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일신사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안에 들어오셨으며 그가 바로 예수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요하나 성서 첫번째 장 14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다>라고 적혀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안에 9 달동안 놓이게 되고 인간의 몸이 된후 인간처럼 출생했다고 믿는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숙고하여 보자. 있으라는 한 마디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궁 속에 아홉달 동안이나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한다. 누가 예수를 창조하셨는가? 그 분은 하나님이신가?

만일 예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또한 다른 여타의 인간들처럼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 실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아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허약하며

예수 또한 완벽하지 않다. 예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예수의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숭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과거의 우상숭배자와 이교도들의 철학과 일치한다. 아랍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여러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평화가 그 분께 깃들기를)에 대한 진실은 성 꾸란 바카라 장 117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니 어떤 목적을 두시고 있어라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더라> 실로 예수는 아담의 자손 중의 한 명이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예수를 창조하신 과정은 성 꾸란 이므란 장 59 절에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름 바가 없노라 하나님은 그를 흠으로 빚어 그에게 말씀하시니 있어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그 날 그 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라>(성 꾸란 안암 장 73 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성부의 하나님 둘째는 성자의 하나님 셋째는 성령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하나님이 한 명의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한다. 구약 성경과 모든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깊이 공부해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기독교인들의 철학은 다신교도들의 철학과 비슷하다. 삼위일체의 주장이 다신주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삼위일체설을 합리화시킨다. 기독교인 학자 J.F. 데그루트씨는 삼위일체란 진실로 하나의 비밀이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인간의 두뇌가 세 명의 신이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삼위일체의 신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른 일이며 사람들이 성령을 숭배한다면 그것도 바른 일이며 성부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예수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 오신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ﷺ)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삼위일체설은 유일신주의의 가르침에 모순된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설에 근거한 그들의 숭배가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랍 우상숭배자들 또한 우상 안에 내재해 있는 영혼을 숭배하며 그 영혼이 자신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믿었다. 우상 숭배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교리와 철학들은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하나의 공통된 축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동반자를 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원한 적 악마의 유혹이다.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성 꾸란 야썬 장 60-62 절)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동북 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자를 따라 여러 신을 섬겼다. 옥황상제와 같이 신들 중 우두머리 신이 있어 그의 권자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고 우주 삼라 만상의 일을 주관하기 위해 여러 대리인들을 둔다고 믿었다. 이에 더하여 용왕이라고 불리는 해신이 있었다. 그 또한 여러 대리인들을 두었다. 땅을 지키는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신도 있었으며 그 역시 여러 대리인들을 두었다. 위의 세 명의 신과 함께 영혼의 신인 귀신도 있다고 믿어졌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분의 권자는 하늘 위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생각에 따라 주님께 여러 동반자를 두었다.

## 제 1 장

### 하나님에 대한 믿음 Belief in Allah

유일신 하나님(그 분께 영광이 있으소서)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다. 실로 그 분께서는 처음이시자 마지막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성 꾸란 하디드 장 3 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계시되었다. <그 분은 태초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며 현존해 계시되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믿음이란 결과 속이 일치하고 마음과 말로써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와 속성,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한 완전한 증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더하여 무함마드(ﷺ)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며 그 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믿음을 증언한다.

이슬람 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사도들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다. 이슬람은 반역과 고집과 편견이 없는 종교이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말로써 표현된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마음과 혀와 신체 기관에서 발견된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순종의 상태이며 자만심이나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이며 모든 신체 기관의 순종함 또한 신앙의 일부이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함축하며 신앙심(이만)은 더 구체적인 단어이다. 신앙심은 이슬람에서 가장 명예로운 부분이다. 실로 모든 믿음은 순종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순종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현세에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에 내재하여 성장한 것이다. <그대의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사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란 말인가 하시니 그렇지 아니 하옵시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 하니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또는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였을 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할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성 꾸란 아으라프 장 172-173 절) 인간은 이런 믿음의 본성인 하나님과의 성약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디쓰 부카리에서 전승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이신 무함마드(ﷺ)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믿음의 본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그러나 아이를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부모이다>

이러한 성약과 확실한 목적을 시작으로 인간은 창조주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직관적인 일로서 이성적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영혼적 추측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어떠한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실로 명백한 증거들이 모든 사물에서 나타나며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명백한 확신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성 꾸란 야씬 장 38 절을 보자. <태양은 그의 궤도를 운행하니 그것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 분의 명령이시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자.

1. 지구: 지구의 크기, 생명을 유지시키는 태양의 열과 빛으로부터의 거리, 지각의 두께, 물의 양, 이산화탄소의 양, 질소의 양과 인간의 형상 등 생명의 모든 요소들이 결함 없는 완전한 체계이다. 여기에는 필시 정확히 계산된 법칙과 함께 의도적인 계획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현상이 우연히 아무 행성이나 생길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한 시간에 1000 마일의 속도로 회전한다. 만일 그 속도가 100MPH 만 줄어든다고 해도 밤과 낮의 길이가 10 배나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회전 속도가 100MPH 증가한다면 밤 낮의 길이가 10 배나 줄어들 것이다.
3. 태양광선이 1.5 배만 감소하여도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추위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4.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50 마일만 줄어들어도 지표면이 하루에 두번씩 썰물과 밀물 때문에 잠기게 될 것이며 밀물은 지표면의 생명체를 사라지게 하고 산을 삼키는 각도로 달려들 것이다. 반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50 마일 늘어난다면 지표면의 물은 사라지고 생명체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
5. 공기는 일정한 두께로 지각을 덮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세균을 죽이고 비타민을 만들어내는 광선을 통과시킨다.
6. 지구로부터 분출되는 가스는 대부분 독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필요한 만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는 각기 다른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질소가 87%이며 산소는 21%, 나머지 가스는 1%이다. 산소의 양이 50%로 증가한다면 모든 물질은 소량의 번개불에도 전부 타버릴 것이다.
7. 나뭇잎은 인간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분출한다. 이는 식물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식물이 사라진다면 동물들 또한 사라지고 만일 동물들이 멸종한다면 식물들 또한 매마르고 죽게 된다. 동 식물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이상으로 주님께 의해 창조된 장엄한 체제에 대해 간단한 몇 가지 예시들을 나열해 보았다. 우리는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놓으신 주님께 대한 예증들을 확인했다. 생명을 보호하고 존재하게 하는 정확한 균형은 바로 한 분이신 주님(영광이 그 분께 있으소서)에 대한 예증이다. 과거 야랍 유목민들은 배설물이 동물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믿었으며 땅에 난 자국은 대상들이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며 별이 가득찬 우주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과학으로 인해 위대한 우주의 여러 모습들이 증명되었다. 건전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우주의 창조주의 존재와 그 분의 장엄함과 능력을 믿는다. 오 하나님이며 저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 이전과 이후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며 그 분께서는 시작 없이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며 끝이 없는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며 영적인 영혼도 아니시다. 그 분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시다. 그 분과 대등한 것 아무도 없으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환경과 사회의 영향에서 한걸음

물리나 사심없는 마음으로 성찰해본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유일하신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다. 이 창조주가 바로 주님이시며 그 분께서는 어떤 동반자나 견줄만한 어떤 것도 갖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경험을 통한 지성으로 깨닫게 되는 불가결한 사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분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예증 외 우주의 창조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성을 주셨다. 그 분은 인간에게 하늘의 궤도와 은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신다. 결과적으로 이성은 주님의 능력과 장엄함을 숙고하게 되며 하나님을 숭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르러 장 189-191 절에 말씀하사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천지창조를 보고 또 낮과 밤의 변화를 보라 이해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 권능의 상징이라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하나님을 염원하고 천지창조를 숙고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말하길 주여 주여 당신은 아무 의도 없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나이다 저희를 유향불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이성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입증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에게 동반자를 두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뇨 라고 하니 그대가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이라>(성 꾸란 안카부트 장 61 절)

18 세기의 철학자 허셀은 “ 과학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권능자의 존재를 말해주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입증된다” 라고 말했다.

만일 독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과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자리아트장 21 절에 말씀하사 <또한 너희 마음 속에도 있거늘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창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하늘과 그 안의 모든 것들, 지표면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해야 한다. 개미와 파리와 같은 작은 것들을 보자.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어느 동반자나 대등한 것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각기 다른 종으로 생존하는 동물들의 몸과 그들 몸안의 기관들을 보자. 위, 심장, 간, 내장들과 이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숙고해 본다면 인간은 그런 것의 가장 작은 부분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몸 안의 기관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들은 서로 비슷한 몸 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창조의 신비를 말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체들을 만들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짓게 된다. <낙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들은 숙고하지 않느뇨 하늘은 어떻게 높이 올려졌으며 산들은 어떻게 고정되었고 대지는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숙고하지 않느뇨>(성 꾸란 가쉬야 장 17-20 절)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뇨 이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이더뇨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성 꾸란 뚜르 장 35-36 절)

모든 피조물들은 현존하시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의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는 일일이 셀수 없을 정도이다. 주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본능은 이성에게 동의하고 모든 증거가 증명하는 올바른 논리로 보조된다. 본능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나 하나님의 광명을 받으면 재빨리 돌아온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허약한 종복이오며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오시며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향보다는 내면을 정확히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 of God

주님(그분께 영광이 깃드소서)께서는 그 어느 것에 비유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분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에도 존재하셨으며 현존하신다. 그 분은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 아니시다. 그 분은 동반자나 동료로 두지 않으시다. 그 분은 시작 없이 처음이신 분이시며 끝이 없이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현존하시며 결코 사라지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며 숨겨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 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에 대해 권능이 있으시다. 망각이나 졸음도 그 분을 엄습하지 못하며 어떤 결함도 없이 완벽하신 분이시다. 무슬림 학자라면 모두 하나님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다는데 동의한다.

#### 유일신 사상 Islamic Monotheism (The Oneness of God)

아부 까셈 엘 케쉬리는 아부 하켄 엘 세흐스타니의 말을 전한다. “나는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증손자 유스프 이븐 후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이야기인즉, 어떤 사람이 3 대 칼리프 우스만에게 유일신 사상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우스만이 대답하기를, ‘유일신 사상이란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분께서는 그 분이 원하시는대로 행하신다. 설사 그 분께서 어떤 결함있는 것을 창조하신다할지라도 그 분께서는 완벽한 분이시다. 그 분께서는 하늘과 대지를 운영하시며 모든 물질적 관념이나 상상의 한도를 넘어선 분이시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은 그 분의 능력과 의지로써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며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다.’

하디쓰에 전승하는 바로는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셨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동료도 동반자도 두지 않으시며 모든 것이 당신께 의존하나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주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이에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하나님께 그 분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분 외에 진실은 없으며 진실한 존재도 없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성 꾸란 이클라쓰 장에 말씀하사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으며 그 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이 수랏(이클라쓰 장)은 성 꾸란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하디쓰 부카리에 아부 사드가 이렇게 전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아침이 될때까지 이클라쓰 장을 암송하는 것을 들었다. 이때 사도(평화가 그 분께 깃드시기를)께서 오셨으니 그가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데, 이 수랏은 전체 성 꾸란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이 수랏은 순수한 유일신 사상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며 주님께서 동반자가 없으시며 비교할 자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 영광이 깃드소서’

한 분이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주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동반자나 동료가 없으신 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분 이전과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무슬림들에게 논쟁의 여지 없는 분명한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유일신 사상은 이슬람의 초석이며 어긋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한다. 이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숭배로 간주하며 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만일 단식과 자선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외 다른 동반자를 둔다면 이는 바로 우상숭배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예배와 단식을 하고 자선을 베푼다면 그의 모든 숭배 행위들은 헛된 것이며 결국 보상이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 다른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 역시 유일신사상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어떤 소원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청하는 것이 유일신 사상의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알파티하 장에 말씀하사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성 꾸란 이스라 장에 말씀하사 <믿는자로써 노력을 다하며 내세를 원하는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 생명의 속성 The Attribute of Life

하나님께서 성 꾸란 푸르칸 장 58 절에 말씀하사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분만을 의지하며 그 분만을 찬양하라> 바까라 장 255 절에 말씀하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 분은 살아 계시사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다 졸음도 잠도 그 분은 엄습하지 못하다 천지의 모든 것이 그 분의 것이니 그 분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으랴 그 분은 그들의 안중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그 분에 대하여 그 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 권자가 천지 위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니 그 분은 가장 위에 계시며 장엄하시노라>

생명을 부여하시고 다시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핫즈 장 6 절에 말씀하사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진리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시는 분이시라> <황폐한 촌락을 지나는 사람을 비유들어 말하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소생시킬 것인가 라고 물으니 백년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여 그를 다시 소생시킨 후 주님께서 너는 얼마동안 체류했느냐 라고 물으니 그 사람 말하되 하루나 반나절 체류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백년을 체류하였노라 하시며 너의 음식과 음료수를 바로 보라 이는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당나귀를 보아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금 인류를 위한 예증으로 하였노라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어 그 위에 살을 부합시켰는가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말하길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 하십니다 라고 하더라>(성 꾸란 바까라 장 159 절)

#### 지식의 속성 The Attribute of Knowledge

지식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 그 분은 비밀을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 꾸란 따하 장 7 절에 말씀하사 <그대가 큰 소리로 말하던 또는 그렇지 아니하던 실로 그 분께서는 비밀도 그리고 감추어진 것도 아시노라> <하나님은 눈으로 기만하는 술책과 인간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성 꾸란 가피르 장 19 절)

<주님은 모든 것을 그 분의 지식 안에 두셨으니>(성 꾸란 안암 장 80 절)<그 분은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 그들이 이후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나 그들은 그 분에 관하여 지식이 없노라>(성 꾸란 따하 장 110 절)

#### 권능과 의지의 속성 The Attribute of Mighty and Will

하나님의 권능과 그 분의 장엄함은 성 꾸란 하쉬르 장 24 절에 말씀하사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요 형상을 만드는 분이시라 가장 훌륭한 이름들은 그 분의 것이며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분께 영광을 드리나니 실로 그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천지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은폐될 수 없노라>(성 꾸란 이므란 5 절) <천지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사이의 삼라만상이 그 분의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성 꾸란 마이다 장 17 절)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의 범주를 넘어선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때에는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 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절대 권능을 지니신다. 무엇이든지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분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다. 성 꾸란 인싼 장 30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아니 되나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 창조의 속성 The Attribute of Creation



창조란 전혀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 없다. 주님은 창조의 주체이시며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주님을 제외한 그 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하여금 간단한 뭔가라도 창조해 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하나님에게 동반자를 두는 자들은 그들이 전부 모여 도모한다해도 파리 한 마리라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허나 악마가 나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기만하며 그들이 뭔가를 창조하거나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선동한다.

바벨왕 남루드는 아브라함(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시대에 백성들이 자신의 명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왕은 자만심에 빠지고 악마가 그에게 신의 존재가 되라고 부추겼다. 왕은 그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시험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성 꾸란 바까라 장 258 절에 계시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그의 주님께 관하여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려 하느뇨 이때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라함 가로되 그 분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불신한 그들은 당황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은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 말씀의 속성 The Attribute of Speak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이다. 성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된 속성이다.

이븐 알 카이엠은 그의 저서 <알람 알 무킨> 제 1 장 299 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란에 계시되었다. 그 분은 말씀하사 혀나 문자를 필요치 아니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 듣고 보시는 속성 The Attribute of Hearing and Seeing

하나님은 귀 없이 모든 것을 들으시며 그 분이 원하시는 바 큰 소리건 작은 소리건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심지어 개미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에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녀의 진술을 수락하사 너희 쌍방간의 진술을 듣고 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켜보심으로 충만하심이라>(성 꾸란 무자달라 1 절) <실로 그 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 보고 계시니라>(성 꾸란 슈라 장 11 절)

#### 천사에 대한 믿음 Belief in Angels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천사들에게 다른 임무를 명하셨다.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중의 하나이다.

#### 천사의 존재 The Existence of Angels

필자는 천사들이 실제로 존재한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들과 그 영향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형이상학적 존재를 부인한다. 비물질적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은 뚜렷한 존재를 보인다. 인간은 영혼, 이성, 공기 등을 믿고 그것의 존재를 확증한다. 천사의 세계는 그 존재가 확실하다. 모든 종교와 성서들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존재를 확증하셨고 그 분께서는 만질수 없는 감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그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이 있었느니라 내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것이니라>(성 꾸란 사드 장 71 절) <그대 주님께서 천사에게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성 꾸란 바까라 장 30 절)

#### 천사들의 본성 Nature of Angels

천사들의 실체는 부드러운 빛의 형태로 구성된 영혼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창조된 것들이다. 이맘 무슬림은 그의 하디쓰에서 아이샤의 말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들은 빛으로 창조되었다’ >

성 꾸란 파티르 장 1 절에 하나님께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지니 그 분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을 두어 두쌍, 세쌍, 네쌍의 날개를 가진 전령으로 두셨으며 그 분의 뜻대로 창조를 더해 가시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하셨다.

#### 천사의 임무 The duties of Angels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분이 원하시는 임무를 주셨다. 천사는 자기 의지나 선택권이 없다. 그들은 주저 없이 하나님의 명을 수행한다. 거짓이 없으며 망각하거나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천사들에 대하여 아바싸장 15-16 절에서 말씀하사<서기의 손들에 의해 기록되나니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보내사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를 경외하라>(성 꾸란 나홀 장 2 절)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자 그러하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사도들을 믿으며 우리는 사도들 중 어느 한 사도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칭취하고 복종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여! 여행의 종말을 당신에게로 돌리나이다>(성 꾸란 바까라 장 285 절)

####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에게 전달하는 천사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매개체로 성서와 계시와 말씀들을 모든 사도들에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홀장 102 절에 말씀하사 <일러 가로되, 성령이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믿는자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ﷺ)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읽으라. 그대의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느니라.> (성 꾸란 알라끄 장 1-5 절) 하디쓰 부카리와 무슬림에서 선지자의 부인이신 아이샤가 전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구절은 처음으로 계시된 성 꾸란의 구절이며 그 후에도 많은 계시가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ﷺ)에게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왔다. 어떤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관대한 동료들 사이에 앉아 있기도 했다>. 부카리는 그의 저서 베다 엘 와히에서 아이샤의 말씀을 전한다. <교우분 중 알 하리쓰 이븐 헤샤이 선지자에게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선지자께서 대답하사 ‘때로는 종이 울리는 것처럼 다가오며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하기도 한다. 가브리엘 천사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무슬림은 우마르 이븐 알 까탑의 말씀을 전하다. <우리가 선지자와 함께 앉아있었을 때 순백의 옷을 입고 흑발의 머리를 한 사람이 다가와 선지자와 함께 앉더니 ‘무함마드여 이슬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다. 선지자(ﷺ)께서 대답하사 이슬람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이며 예배를 드리고 자선을 베풀며 라마단 월 동안 단식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사람이 그것은 맞는 대답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이어 그 남자가 사도께 신앙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사도께서 답하시기를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천사와 성서와 사도와 심판의 날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가 또 질문하기를 선행은 무엇이냐고 했다. 사도께서 답하시기를 선행은 분명한 일을 보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또 묻기를 부활의 날이 언제이냐고 했다. 선지자께서 대답하사 그것은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가 다시 부활의 날에 대해 질문하자 선지자께서 무지한 사람들이 지배를 할 때라고 답하시고는 이제 충분하니 가라고 하셨다. 선지자께서 우마르를 불러 누가 그 사람인지 물어보셨다. 우마르가 모른다고 답하자 선지자께서 그가 가브리엘 천사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답하셨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 분의 계시를 전달하였다. 그는 꾸란을 선지자 무함마드(ﷺ)에게 낭송하였으며 선지자(ﷺ)는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23년 동안 꾸란의 구절들을 낭송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신 임무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적들에 대항하여 사도들이 승리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 지지하셨고 가브리엘을 성령으로 명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의 바카라장 87 절에서 말씀하사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호케 하였도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영원하고 너의 어머니를 생각할지니 내가 너를 성령(가브리엘)으로 보호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어린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천사 가브리엘의 보호 하에 두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였다. 12000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이브란장 54-55 절에 말씀하사 <그들이 음모를 하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영특한 계획자이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하며 불신자들로부터 세정케 하며> 실로 하나님은 예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늘로 승천케 하였다. 예수의 승천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하신 것이다. 성 꾸란의 니짜아장 157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치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었느니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이며 단지 추측을 따르는 것이거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찬미만을 드리는 천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와 언급을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메카의 카바 주의를 돌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분께 감사를 드린다.

기록을 담당하는 천사

어떤 천사들은 기록을 담당한다. 그들은 인간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다. 이들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관찰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받아 기록해주는 두 명의 천사를 동반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인피따르 장 11-12 절에 말씀하사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며 그들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나의 스승이신 하피즈 이븐 카티르께서는 학자들은 천사들의 기록하는 임무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천사가 모든 말 특히 의도나 의미도 없는 말조차 기록하는가에 대한 의견이다. 이맘 하싼 바싸리와 이맘 까타다는 <천사들은 일단 모든 말들을 기록하며 의도나 의미가 없는 말조차도 기록한다.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빈 압바쓰는 <천사는 단지 보답이 있게 될 좋은 말과 벌이 있게 될 나쁜 말만을 기록한다. 의도나 의미 없는 말들은 기록하지 않고 버린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맘 말리크와 이전 학자들은 두 천사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며 심지어 앓는 소리조차도 기록한다고 여긴다. 이맘 아흐맘은 마지막 병석에서 누워있을 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앓는 소리라 할 지라도 인간이 내는 모든 소리를 천사가 받아 적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도 알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하며 아부 후라이라가 전한 하디쓰의 내용을 언급한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들이 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졌으나 나를 위해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한 가지 선행을 한 것으로 기록하라.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한 가지 악행을 한 것으로 기록하라. 만일 나의 종이 선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천하지 않았다면 한가지 선행을 한 것으로 기록하라. 만일 선행을 실천하였다면 열배에서 칠백배에 이르는 선행을 한 것으로 기록하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 임종을 담당하는 천사

이스라엘은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들의 수장이다. 그는 여러 천사들(평화가 그들에게 깃들기를)의 도움을 받아 일을 수행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싸즈다 장 11 절에 말씀하시 <일러가로되 너희를 맡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임종케 하리니 너희는 너희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 지옥을 지키는 천사

하나님께서 성 꾸란 타흐림 장 6 절에 지옥을 지키는 천사에 대해 말씀하시 <믿는 사람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그 위에 천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한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명령받은 대로 임하게 할 뿐이라> 지옥을 지키는 천사들의 수장은 말리크이다. 그는 여러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하나님께서 무다씨르 장 31 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천사들을 불지옥의 수호자들로 두었노라>

#### 부활을 알리는 천사

이는 이스라필(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천사이다. 그는 모두에게 심판의 날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스라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며 심판의 날을 알리게 된다.

#### 진(믿는자와 불신자) Jinn(Believers and Unbelievers)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 모두에게 내려주신 경전과 기록들에서 진의 존재를 명확히 언급하신다. 진은 형이상학적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라흐만 장 15 절에 말씀하시 <영마를 창조하되 화염으로 만드셨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화염에서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들의 몸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데 이는 진이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여러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자리야트 장 56 절에 말씀하시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진은 하나님께 순종하곤 하였으나 일부는 이블리스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성 꾸란 진 장 1-4 절에 말씀하시 <일러가로되 내게 말씀이 계시되었고 한 무리의 영마가 꾸란을 듣고 말하길 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꾸란 낭송을 들었노라 하더라 그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되 주님을 어떤 것과 비유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으신 분이요 우리 가운데 우매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하는 자 있었으나>

앞서 언급했듯 진은 순종적이나 이블리스는 그들을 방황하게 하는 자이다. 이블리스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절을 하라 명했을 때 천사들의 무리와 같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천국에서 추방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었으니 이로부터 내가 내려가 내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나가라 내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성 꾸란 아흐라프 장 13 절) <심판의 그날까지 나의 저주가 너에게 있으리라>(성 꾸란 사드 장 78 절) 이블리스는 진으로 태어났으며 사탄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랍어 사탄이란 말의 어원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진자를 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추방당한자는 사탄이라고 불린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 또한 사탄이라 불린다.

원래 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며 그 분의 위대하심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이블리스는 거만해졌고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높은 지위를 보고 난 후 가슴 속에 인간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그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블리스와 그의 추종자들과 인간 사이에 투쟁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자비로써 아담과

인간에게 이블리스의 시기와 음모를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영마와 사람들 모두로 지옥을 채우리라>(성 꾸란 싸즈당 장 13 절) 악마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불의 연로가 된다. 성 꾸란 아이라프 장 30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인도된 무리가 있었고 그 분의 길을 잃어버린 무리가 있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들을 친구로써 그리고 보호자로 택하여 그들이 인도를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시 돌아 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성 꾸란 안암 장 28 절) <하나님이 그들과 사탄들을 불러모아 무릎을 꿇도록 하여 지옥의 주변으로 모이게 하리라>(성 꾸란 마리아 장 68 절)

사탄과 아담의 자손중의 일부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졌다. 사탄이란 그런 인간과 진모두를 지칭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안암 장 112 절에 말씀하사 <그리하여 각 예언자를 위해서도 인간과 영마 가운데서 사탄을 두었으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여 거짓을 조성하더라 그대의 주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그리하매 그들이 거짓한 대로 두라 하였노라> 누구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사탄으로 간주된다. 성 꾸란 아이라프 장 179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이 지옥을 두매 많은 영마와 사람을 위해서라 그들은 마음이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더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황하더라>

진은 믿는자와 불신자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많은 사람들이 진과 사탄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과장하여 말한다. 그러나 실로 인간에게 도움이나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진에게는 인간에 대한 물질적 통제력이 없고 믿는자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갖으며 믿는자에 대해 사탄의 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그의 마음을 사탄에게 건네주고 사탄과 함께 함을 좋아하고 사탄의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망각하였을 때는 예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악마의 존재에 대해 경고하셨다. 악마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며 선동한다. 성 꾸란 나쓰 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일러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인류의 왕이며 인류의 신에게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의 재앙으로부터 인간의 가슴 속에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영마와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나이다> 이블리스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으나 인간에 대해 실질적, 물질적 권한은 없다. 사탄은 인간 내부에 있는 물질에 대한 감각과 유혹을 이용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속삭인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추한 것을 좋아하도록 부추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을 잘 꾸며놓았으며 물질적 신체의 욕망을 강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강력한 욕망을 꾸준히 갖게 하여 이상적인 것을 싫어하게끔 만든다.

결국 온전한 믿음의 본성을 잊게 하고 높은 도덕성과 관대성을 잃게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로 간주하게끔 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물질적 존재와 유사한 물질적 형태로 나타내어 하나님을 비유하였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을 잡기위해 이성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각과 인간의 행위를 조절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게 되고 그 분께 감사드리며, 찬미하며, 경배할수 있게 되고 행복과 고귀함을 가진 인간적 완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 성서에 대한 믿음 Belief in the Holy Books

하나님께서 성 꾸란 하디드 장 25 절에 말씀하사 <실로 하나님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사람들이 공평하게 스스로를 인도할 성서와 균형을 함께 보내셨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성서와 사도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서와 계시문은 그 수가 많아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바까라 장 285 절에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주님이 계시한 것을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하도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서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이슬람은 성서들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성서들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근본 초석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슈라 장 15 절에 계시하사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서를 믿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것을 따르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성 꾸란 안암 장 155 절) <주여 당신이 계시한 것을 믿사오며  
당신이 보낸 선지자를 따르나이다 저희들을 증언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성 꾸란  
이므란 장 53 절)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류는 더 많은 복잡한 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법을 계시하셨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지자를 사람들 중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성서들은 꾸준히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이스라 장 2 절에 말씀하사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사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복음이 되도록 하였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계시를 내리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그들은 놀라게 하였단  
말이뇨>(성 꾸란 유누스 장 2 절) 모든 성서와 계시문에 계시된 신앙은 하나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의 본질은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찾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뿌리와 가지에 있어 일치하며 신앙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안비야 장 25 절에 말씀하사 <그대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계시를 내릴  
때도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라 하였노라>

#### 성서와 새로운 계시문의 역할 The Mission of the Holy Books and New Scriptures

하나님은 각 민족에 성서를 계시하시면서 유일신사상을 강조하셨으며 성서의 위조를  
경고하셨다. 성 꾸란 마이다 장 41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며>  
성서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이유로 매 계시마다 바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결국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을 때는 원본에 수정이 가해졌다. 초기 성서의 보존은 사람들의 암기에  
의존하였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본을 망각하고 새로운 것을  
원본에 추가, 수정하게 되었다.

성서의 왜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유된다.

1. 구약성서는 세 차례에 걸쳐 불태워졌으며 그 후 기억에 의존해 다시 기록되었다.
2. 내용 중 일부는 수정되어 기록되었는데 이는 부자와 권력층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성 꾸란 바까라 장 75 절에 말씀하사 <그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성  
꾸란에 네 가지의 성서에 대해 언급하신다. 이는 바로 토라와 자부르, 인질과 성  
꾸란이다.

#### 토라(Kitab Tawrah)

하나님이 사도 모세(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에게 계시한 성서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과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한 삶의 지침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과 인간  
창조의 시작과 고대 국가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모세 이전의 인간들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된 하나님의 신앙을 정정하고자 함이었다. 이 성서의 원본은 불탔고 기억을  
더듬어 여러 차례 다시 기록되었다. 결국 원본이 사라질 정도로 변질되었고 왜곡되었다.  
그들 또한 이 구약의 원본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다.

이슬람학자 아부 하산 알 나다위에 의하면 <유대인 역사가자들이 증명하는 바로  
구약성서는 세 차례에 걸쳐 소각되었다>.

바벨왕 네부차드 네자르에 의해 처음으로 구약 원본이 소각되었다. 그는 예수살렘과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구약의 기록과 모세와 하룬의 백성들이 가진 기록들을 소각시켰다.  
왕은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시로 끌고가 그 곳에서 50 년을 징역케했으며  
구약성서는 수정과 추가를 거쳐 다시 쓰여졌다.

두 번째 구약 소각 사건은 그리스의 왕 엔티오쿠스 시대에 일어났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구약의 낭송을 금하였다.

1970년 9월 로마의 왕 티투스 부르네드는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로마수도로 구약 성경을 가져갔으며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구약은 민족의 역사책과 유사하게 변질되었다. 그런 후에 그 책은 신약에 삽입되게 되었고 구약이라 불리게 되었다.

#### 자부르(Kitab Zabur)

자부르는 하나님께서 사도 다윗(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에게 계시한 것이다. 왜곡된 구약의 내용을 정정하는 가르침과 기도들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자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 있는 가르침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셨다.

#### 인질(Kitab Injil)

인질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사도 예수(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에게 계시한 것이다. 손실되거나 왜곡된 시편을 정정하고 신앙의 지침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도 예수에게 계시한 인질은 신앙과 교훈과 경고의 성서이다. 인질의 원문은 예수가 떠난 후 불태워졌으며 계시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성서의 구절들을 바꿔나갔다. 1995년 9월 1일자 타임즈는 신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새 개정판은 하나님을 특정한 성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오른쪽과 왼쪽 어느쪽도 선호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번역본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을 생략하였다. 오른손을 말하는 것은 왼손을 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자로서 계십니다’라고 바꿨다. 유대인들의 예수 처형에 대한 재판은 말해주는 표현들은 삭제되었으며 어둠이라는 단어도 삭제되었는데 이는 겁다는 단어가 흑인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유대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은 ‘당신은 하나님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바꿨다.

이 밖에 ‘알 랍’이라는 단어도 여성들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었다.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 개정판은 ‘알 랍(남성신)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구절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로 바꾸었다.

예수를 지칭하는 구절에서도 ‘인간의 아들’에서 ‘인류의 아들’로 대체되었으며 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랍’이라는 남성 신을 가리키는 단어를 중성으로 바꾸려 했으나 그 의미가 너무 모호하여 결국 공통된 이름인 ‘일라’ (신)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타임즈는 새 개정판이 1995년에 출간되어 독자들이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성서가 신의 진실한 말씀인가 아니면 사도나 성직자들의 의견인가?

만일 신약성서가 성직자들의 의견이라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시키고 있는가? 가장 간단한 예로 만일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한 말을 생략하고 자신의 말을 첨가하여 넣은 다음 당신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당신은 그가 거짓말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2000년 전 예수에게 성령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셨다. 믿는자들은 그 성서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 스스로의 손으로 고친 성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라고 믿는자는 없다.

#### 성 꾸란

성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다.

1. 성 꾸란은 마지막 성서로 그 이전에 계시된 성서와 계시문들을 담고 있다.
2. 성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ﷺ)에게 계시되었다.



3. 성 꾸란은 앞서 계시된 모든 성서들의 내용을 포함한다.
4. 성 꾸란은 계시된 때에 기록되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도(صلى الله عليه و سلم)를 가르치기 위해 내려왔으며 선지자(صلى الله عليه و سلم)의 감독하에 기록되었다. 선지자(صلى الله عليه و سلم)께 계시된 꾸란은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꾸란과 정확히 같은 것이다.
5. 성 꾸란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6. 성 꾸란은 신앙의 근간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심판의 날 그리고 천국과 정원, 지옥과 징벌에 대한 내용이다.
7. 성 꾸란은 인간 생활법의 근간을 가르친다. 계약법 가운데 사고 파는 것, 병합, 결혼과 이혼은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마이다 장 3 절에 말씀하사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라고 하셨다.
8. 사회적 교육,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를 담고 있으며 이는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다. 성 꾸란은 부모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금하며 속임수와 소문, 배반이 금지된 바탕하에 상호관계를 중시한다.
9. 고대 국가들과 그들에게 임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 하나님의 꾸란 보호 The Protection of the Holy Quran by God

심판의 날까지 꾸란이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멸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히즈르 장 9 절에 말씀하사 <하나님이 실로 그 메세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즉 하나님은 꾸란을 변화와 왜곡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꾸란을 위해 사람들이 가슴 속에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록자들을 준비하셨다. 그들은 꾸란을 낱장으로 기록했으며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지었다. 초기 신앙인들은 그것을 사도의 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 이후 세대는 문자나 의미의 변화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연구하고 보존하여 세대를 이어 계속 전승하였다. 사도의 시대에 쓰여진 꾸란본은 아직도 터키 이스탄불에 잘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도 수십만의 무슬림들이 꾸란을 암송하고 있다.

#### 4 권의 성서에 대한 연구

다음 3 권의 성서 즉 토라와 자부르와 인질의 원본이 상실되었고 그것의 내용은 변질됐으며 최초의 말씀이 손실되었고 언어 번역의 와중에 그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보존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성서들과 오래된 계시문들을 보존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다.

의심할 여지없이 꾸란에 앞서 계시된 성서들과 오래된 계시문들은 그 이후에 온 다른 성서나 계시문들이 내려옴으로써 연속적으로 대치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성서와 계시문들은 재차 그 다음 선지자와 사도에게 반복하여 계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고대 성서들을 읽은 사람은 두 번째 계시에서 원칙의 변화와 의미의 차이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성서와 계시문이 내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상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서는 의미와 원칙에 있어 하나이다. 그러나 처음 것은 망각과 번역의 차이로 인한 부주의 때문에 변화와 왜곡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재차 같은 의미와 원칙을 새로운 방식으로 광범위한 성서로 계시하시게 되었다. 이는 특히 같은 신앙의 의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믿음의 원칙과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도 대체되지도 않는 역사적 사실을 계시하였다. 전에 계시된 성서와 후에 계시된 성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독자는 후에 계시된 성서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후자가 더 최근의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계시된 모든 성서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성서를 내려 보내신다. 이전에 계시된 모든 성서와 그것이 말하는 의미와 규범들은 성 꾸란에서 발견된다.

성 꾸란은 가장 새로운 형태로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성서이다. 이것은 우주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되었으며 심판의 날까지 그 기록과 전승이 보존된다.

우리가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꾸란은 마지막 선지자에게 계시된 꾸란과 정확히 일치하며 아무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꾸란의 왜곡과 변형을 금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성 꾸란이야말로 모든 이전의 성서를 담고 있는 마지막이며 가장 광범위한 성서이다. 꾸란에 앞서 계시된 성서들은 모두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를 위해 계시되었다. 초기 인류는 원시적이었으며 과학의 발전은 더디었고 무지가 팽배해 있었으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부자나 왕을 숭배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정의를 심게 하셨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주님을 숭배케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의 욕망에 가지거리였다. 억압의 시대에 글을 아는 사람들의 수는 적었으며 대중들은 먹을 것을 찾기에 바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난한 평민 계급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싸울 만한 실제적 힘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꾸란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은 왜곡되고 변형되었으며 수 차례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원본은 상실되며 성직자와 왕의 욕망에 따라 다시 쓰여졌다.

성서가 계시되었던 언어는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본은 상실되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들이 성서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현재 구할 수 있는 성서는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번역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를 계시 받은 사도의 말씀과 그의 추종자들의 의견과 편집자의 의견들이 함께 모두 뒤섞인 것이다.

#### 선지자와 사도 Prophets and Messengers

선지자와 사도는 인간들 중 선택된 사람들이며 완벽한 인간성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수는 성 꾸란 니짜아 장 164 절에 언급되었듯 셀 수 없이 많다. <그대에게 이미 언급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노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유일신 하나님의 섬기라 인도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 상호간에 윤리와 미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와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평화가 그분들에게 깃들기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다. <일러가로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 단지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는 계시가 내게 있었을 뿐이라>(성 꾸란 푸실라트 장 6 절) 당시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다니는 인간에게 어떻게 천사가 내려 올 수 있었냐고 의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 장 96 절에 그들의 의심에 대해 일축하신다. <일러가로되 땅위를 정착하여 평온히 걷는 천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한 선지자로 그들에게 보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서와 지혜와 예언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한 인간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자가 되어 성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라고 하더라>(성 꾸란 이므란 장 79 절) 하나님께서는 나라마다 계시를 부여받을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성 꾸란 이브라함 장 10-11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선지자들께서 말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의심하느뇨 그 분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된 기간까지 너희를 유예하고자 하심이라 그들이 말하길 실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도 당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려 하느뇨 우리에게 분명한 예증을 보이라 하더라 이에 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종 중에서 그 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없이 너희에게 예증을 이르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믿는 신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대 이전에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었으며>(성 꾸란 푸르칸 장 20 절) 사도들은 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결코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 무함마드(ﷺ) 역시 여러 사도들처럼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아흐잡 장 40 절에 무함마드에 대해 계시하셨다. <무함마드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최후의 예언자시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노라> <하나님은 그대를 복음의 전달자와 경고자로써 진리와 함께 보냈으며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노라>(성 꾸란 파티르 장 24 절) <각 민족에 선지자가 보내어져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정당하게 심판될 것이며 부정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니라>(성 꾸란 유누스 장 47 절)

하나님은 사도를 경고자로써 각 민족에게 보내셨으며 사람들에게 사도를 추종하라고 명하셨다.

죄악없이 순결하신 사도와 선지자(The Infallibility of the Messengers and Prophets)

하나님은 성 꾸란 나즈 장에 사도 무함마드(ﷺ)에 대해 말씀하사 <지는 별을 두고 맹세하사 너희의 동료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 했으며 그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내려진 계시라 그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부터 배웠노라>

이슬람 학자들은 사도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점을 확증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맘 말리크는 사도께서 현세에서 하신 실수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 곁을 지나시다가 그들이 대추야자를 이식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사도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이식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에 대추를 이식하지 않자 곧 메마르게 되었다. 사도께서 말씀하사 <여러분이 현세의 일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하지 않으며 계시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합니다.>

사도들 또한 인간으로서 때로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의 카흐프 장 61 절에 말씀하사 <그리하여 두 사람이 교차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망각하는자 물고기는 재빠르게 바다속으로 사라졌노라> <제가 잊었습니다 나무라지 마옵소서>(성 꾸란 카흐프 장 73 절)

## 제 2 장

### 부활의 세계

바르자크 삶: 죽은후 부활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죽은 직후부터 시작하여 무덤은 고문이 되기도 하고 보상이 되기도 한다.

\*나팔이 울림: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영원과 안정된 삶: 천국과 지옥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며 불멸의 세계이다.

하나님과 그 분의 사도를 믿는자들은 모두 불멸의 세계를 믿으며 이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는다. 불멸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번째 단계는 바르자크 세계이다. 바르자크 세계는 죽음과 함께 시작하여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 바르자크 세계와 영혼의 상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바르자크란 단어는 두 가지 사이의 장벽을 의미한다. 또한 죽은 후 들어가는 세계로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장벽으로도 불려진다. 이슬람 학자 이븐 세락은 바르자크란 두 개 사이의 장벽이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며 빛과 어둠 사이의 장벽이며 단물과 짠물 사이의 장벽이다 라고 말한다.

###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바르자크

성 꾸란 무미눈 장 99-100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죽음이 그들에게 이를 때 주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남겨둔 여생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나니 그것은 그가 지껄이는 말에 불과하며 그들 앞에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 이슬람 학자 이븐 알 카임은 바르자크란 현세 삶 이후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라고 말한다. 그래서 무덤 안의 고문이나 무덤 안의 행복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무덤은 사체를 담은 땅속의 구멍이다. 무덤은 천국의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구멍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다. 물질은 삶의 모든 단면안에 보인다. 만일 물질의 세계를 떠나 바르자크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물질은 사라지고 진리만이 물질의 세계와 구별되는 영혼의 방식으로 밝혀진다. 이븐 알 카임은 바르자크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혼의 이상적 세계라고 말한다. 인간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이 나며 육체는 파브르(무덤)안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물질로 돌아간다. 영혼은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다. 만일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면 그는 그들과 함께 바르자크 세계를 보내게 된다. 만일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는 그들과 함께 부활된다. 선지자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은 부활의 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로 보내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라> 바르자크 세계에서 신앙은 필수이다. 신앙을 거부했던 자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 영혼이 쉴 수 있는 장소 The place where souls rest

인간은 완전히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모든 감각활동이 중단되어도 영혼은 아직 육체에 남아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은 다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바르자크 세계로 들어설 때이다.

## 영혼이 만나는 장소 The place where souls meet

살레 알 메리는 영혼들이 육체가 숨을 거둘때 서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체의 영혼들은 새로 무덤안에 들어오는 영혼을 맞이하며 사체에 실려있는 영혼이 선한 영혼인지 악한 영혼인지를 물어본다. 이븐 알 카임은 인간이 사망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한다 라고 말한다. 아베드 이븐 우마르는 인간이 죽으면 무덤 안의 영혼들이 그에 대해 그리고 그의 친구와 친척들의 처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다. 이러한 영혼들의 만남은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확증된 사실이다. 이슬람 학자 이븐 알 카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것은 일종의 사실적인 환영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친척들과 만나는 것은 사실이며 선지자께서 무덤을 지나가실 때에도 영혼들은 그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을 보았다 라고 말한다.

하디쓰 부카리와 무슬림에 전하는 말리크가 전승하는 선지자(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무덤 안에 남겨질때 두 명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사도 무함마드(ﷺ)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어본다. 만일 그가 무함마드(ﷺ)는 하나님의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답한다면 천사들은 그에게 지옥에 있던 그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영혼들은 은혜를 받는다. 하디쓰에 전하는 바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죽으면 그의 업적은 멈추게 되나 그가 남긴 지식과 선행과 착한 자식의 기도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부카리에 전승하기를 사도께서 말씀하셨다.<세 가지 것들이 죽은 이를 따라가는데 이는 고인의 친척과 재산과 업적이다. 친척과 재산은 돌아가고 오직 업적만이 그와 함께 남게 된다. 영혼은 업적에 따라 바르자크 세계에서 분류가 된다. 영혼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고 선행으로 인해 축복받을 수 있다.

## 죽음 Death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안카부트 장 57 절에 말씀하사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죽음은 인간이 더 높은 경지의 삶으로 들어서기 위해 들어서는 관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관장하신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선행을 행한자에게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안락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할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 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음이 있노라>(성 꾸란 푸실라트 장 30 절)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면 현세의 모든 것들은 단절되며 그의 재산도 그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선행과 악행의 결과만이 처리된다. 그의 업적에 따라 천사들은 영혼을 인수하기 시작한다. 만일 선행을 행한 자라면 천사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천국을 기대하게 한다. 하디쓰에 에바다 이븐 알 사메이 전하기를 선지자(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자 하나님은 그를 행복하게 만나실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자 하나님은 그와의 만남을 싫어하실 것이다> 아이샤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나 선지자(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또한 그러하실 것이며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 또한 그러하실 것이다>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은 내세에서의 자기 위치를 알게 된다. 신앙인이라면 천국의 거처를 보게 될 것이며 불신자는 지옥의 거처를 보게 된다. 하디쓰 부카리에 아부 카타다는 이렇게 전승한다. 선지자(ﷺ)께서 장례행렬을 지나치시다가 <지금 죽은 자는 안락을 얻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안락을 얻었는가>라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선지자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 죽은 자는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안락을 찾았는가 아니면 그의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안락을 얻었는가?>

영혼도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자아이므로 영혼도 사망한다고 믿으며 성꾸란 라흐만 장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를 언급한다. 이들은 천사들 또한 인간들처럼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성 꾸란 가피르 장 11 절을 언급한다. <그들은 말하리라 주여 당신은 저희로 하여금 두 차례의 죽음을 맛보게 하고 두 차례의 생명을 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저희의 죄악을 인식하나니 빠져 나가는 길이 있나니까>

위 질문에 대한 다른 견해는 오직 육체만이 사망하며 영혼은 죽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 꾸란 이므란 장 169 절을 예시로 든다. <하나님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치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노라>

이븐 알 카임은 이렇게 말한다: 육체가 사망하면 영혼은 사체를 이탈하여 심판의 날까지 남아 있다.

부활의 날 영혼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나 아니면 영혼이 생명을 가진채 남아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 꾸란 야신 장 51 절에 찾아보자. <나팔의 소리가 들리니 보라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라> <나팔이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제외라>(성 꾸란 주마르 장 68 절) 아부 후라이라와 이븐 압바스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란 순교자들이며 모카텔은 그들이 카브리엘, 미카엘, 이스라필 천사들이라고 말한다.

이맘 아흐마드는 천국의 여성들과 자손들은 부활의 날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안암 장 93 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그날은 어느 누구도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벌만이 있을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속박이 있으리라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영혼들이 너희는 완전한 휴식과 기쁨속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나와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나의 천국으로 드라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성 꾸란 파즈르 장 25-30 절))

무덤 안의 고통과 축복 Punishment and Bliss in the Grave

파브르: 무덤은 천국의 정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구멍이 되기도 한다. 무덤의 축복은 천국의 거주자가 받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며 무덤의 고통은 지옥불의 거주자가 받는 고통과 비슷하다. 하디쓰 부카리에 압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승하는 선지자(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인간이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조석으로 자기의 거처로 불려가는데 천국의 거주자는 천국으로 지옥의 거주자는 지옥불로 불려간다>. 부카리와 무슬림에 알 바라 이븐 아젠티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은 과일을 맛보게 될 것이며 악행을 행한 자들은 무덤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하나님께서 성 꾸란 주므아 장 42 절에 말씀하사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니시라>

파브르는 부활의 첫번째 단계이다 Qabr is the first stage of resurrection

이맘 알 타르미지에 의하면 우스만의 조력자 하네가 말했다. <네 번째 칼리프 우스만은 무덤앞을 지날때마다 멈추어서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는데 어찌 지금은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묻자 우스만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께서 무덤이 부활의 첫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 분은 <만일 인간이 무덤에서 구원받는다면 그 후 일어날 일들은 수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 꾸란에

무덤에서의 고통은 진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라 이븐 아르프에 의해 선지자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승된다. <우리가 무덤에 이르는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선지자께서 앉아 조용히 땅을 바라보시더니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 무덤으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하라고 두 번 세 번 반복하셨다. 인간이 죽으면 하얀 옷을 입은 천국의 천사가 무덤에 내려오며 그의 머리맡에 앉아 영혼아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육체에서 영혼이 물방울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육체에서 이탈하여 좋은 향기가 나는 옷을 받아 입고 하늘로 승천한다. 영혼이 천사들을 지날칠 때면 그들은 좋은 향기가 나는 영혼이 누구인지 묻는다. 죽음의 천사가 그를 가장 훌륭한 이름으로 부르고 가장 낮은 하늘에 도착하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며 일곱번째 하늘에 도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업적을 기록한 책을 준비하라 명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지상에서 대기하라고 하시며 지상으로 영혼을 돌려보내신다. 영혼이 육체로 돌아가면 두 명이 죽음의 천사가 그에게 질문한다. 너의 종교는 무엇인가? 그는 이슬람이라고 답한다. 이어 너의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무함마드라고 답한다. 다음 질문은 너에게 보내진 성서에 대해 말해보라 이다. 그러면 그는 나는 그것을 읽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천국 안에 들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는 이맘 아흐마드에 의해 전승되는 하디쓰이며 이븐 알 카임의 저서 알 가왈 알 카피에도 전승된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 무덤의 압박 Contraction of the Grave

바르자크 세계의 법에 따라 무덤은 죽은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알 베이하키가 전승하는 바로는 아이샤께서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파브르 안의 압박으로부터 사드 이븐 무아즈 같은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 이맘 시웃티는 아부 파심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 누구도 무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불신자들에게는 무덤의 압박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무슬림들에게는 무덤 안에 안착되었을 때 단 한 번의 압박이 있을 뿐이다.>

#### 나팔의 울림 Blowing of the Trumpet

부활의 날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현세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 피조물들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만이 부활의 날 살아 남을 수 있다. 그 날 생명은 모두 창조되었던 최초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 날은 모두가 모여 계산 받는 날이다. <나팔이 울려 퍼지니 그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제외라 그 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 보라 그 때 그들은 서서 지켜보리라>(성 꾸란 주마르 장 68 절)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창조하신다.

나팔의 울림: 나팔이 울리며 공기는 압력을 받는다.

공포: 공포로 인해 도움과 피난처를 구원하게 된다.

사아크(천둥 번개): 사아크는 번개에 의해 일어나는 불을 의미하며 또한 고문을 당한자들의 고통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나팔이 울리는 횟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보이나 대개는 두 번의 나팔이 울린다고 여긴다. 첫번째 나팔은 이스라필 천사가 불며 이 때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타르메즈에 전하는 바로는 선지자(ﷺ)께서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은 자는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까프 장 41-42 절에 말씀하시<그리고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있을 천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되리라>

사람들은 봄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부활되며 영혼들은 자기의 육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로움 장 25 절에 말씀하시 <하늘과 대지가 그 분 명령에 존재함과 그 분께서 너희를 지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너희가 재현됨도 그 분 예증의 하나라>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질때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성 꾸란 하카 장 13-14 절)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앞에 줄지어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최초로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는 노출된대로 하나님에게 오니라>(성 꾸란 까흐프 장 48 절) <나팔이  
울리는 그 날 하나님은 죄지어 두려움에 찬 푸른 눈을 한 죄인들을 불러 모으리라>(성 꾸란 따하  
장 102 절)

#### 부활의 날 The Day of Resurrection

부활은 대지로부터 부활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핫즈 장 5 절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라 실로 하나님이 너희를 흙에서 창조한 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은 대지를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살아나리라  
너희가 흙에서 창조되어 인간으로 번성하게 됨도 그분의 예증의 하나라>(성 꾸란 로움 장 19-  
20 절) <창조를 개시하신 후 다시 되풀이 하심도 그 분이시니 그것은 그 분께 쉬운 일이라 그  
분은 하늘과 땅 위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니 그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성 꾸란  
로움 장 27 절) <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부활의 날까지 체류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성 꾸란 로움 장 56 절)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액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보라 그는 아직도 논쟁하고 있노라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지어내며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하여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보라  
그 때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 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아시노라 실로  
그 분께서 무엇에 뜻을 두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모든 것은 그 분에게로 귀의하노라>(성 꾸란 야썬 장 73-83 절)

#### 모이는 날 The Assembly Day

사람들은 마흐샤르의 땅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은 그가 행동했던 방식에 따라 부활된다.  
부카리와 무슬림에 전하는 바로는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승하기를, <선지자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불신자는 모이게 되는 그 날 어떤 얼굴을 하게 됩니까? 선지자께서  
대답하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를 얼굴 위에 걸게 하신다.>  
타르메즈에 전승되는 바로는 아부후라이사가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사람들은 운명의  
날 부활되어 얼굴 위를 걷고 얼굴 위에 절을 하게 된다.>

#### 심판의 날 The Day of Judgment

마흐샤르 땅에 모인 사람들은 친척이나 형제, 자녀, 사랑했던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의 악행과 선행만을 지닌다. 모든 사람들은 그날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아브라함 장 21 절에 말씀하시 <그들 모두가 무덤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오매 연약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추종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별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를 인도했었으리라 이제 우리가 노여워하거나 인내한다 하더라도 별도리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피신처가 없노라고 하더라> 실로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로서 어머니들은 아기를  
버리고 임산부는 유산하게 되며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성 꾸란 아브라함 41 절) 이 날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사드 장 53 절에 말씀하시 <그와 같이 계산의 날을  
위해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라> 모세(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심판의 날 사람들은  
맨발로 돈도 권력도 없이 옷도 걸치지 못하고 부활된다. 모든 이들은 그의 업적에 의해 판단된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행한 자를 보상하시고 악행을 행한자를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핫즈 장 1-2 절에 말씀하시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진은 무서우니라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젓먹이는 것을 잊으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하도다 그대는 술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천국의 거주자는 약속된 천국으로 안내된다. 실로 그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옥불의 거주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 꾸란 타우바 장 72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사 그곳에서 영생활 것이며 예덴의 천국에는 아름다운 주거지와 하나님의 보다 큰 기쁨이 있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지옥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벌을 받는다. <불신자들은 내가 아닌 나의 종을 구원자로 취하려 생각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주거지로써 지옥을 마련하였노라>(성 꾸란 카흐프 장 102 절) 하디쓰 부카리에 전승하는 바로는 선지자(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첫번째 질문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만일 그가 예배를 바르게 했다면 그의 모든 업적은 받아들여진다.>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구원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살랏(예배)의 언어적 의미는 주님과 그분의 종과의 관계이다. 예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살랏으로 시험하신다. 누구든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실 것이다. 오 하나님, 저희가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불지옥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다.

#### 천국에 대한 묘사 The Description of Paradise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성을 믿고 선행을 행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도들을 믿고 따르며 선행을 행한 자들은 은총의 정원으로 들어간다. <서둘러 너희 주님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에 사는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성 꾸란 이므란 장 133 절)

부카리와 무슬림에 전승되는 바로는 아부 후라이라가 사도(ﷺ)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올바른 종을 위해 정원을 마련해 두셨다. 그것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며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아부 후라이라의 또 다른 전승은 다음과 같다. <선지자(ﷺ)께서 말씀하사 성 꾸란 싸즈다 17 절을 암송하라 아무도 모를 것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 그들을 기쁘게 할 숨겨질 것이라 선지자께서 이어 말씀하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창조하신후 가브리엘 천사에게 천국으로 가서 한 번 둘러보라고 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은총으로 누군가 천국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인내하며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하사 천국으로 가서 한 번 더 둘러 보라고 하셨다. 가브리엘이 천국을 다시 둘러 본 다음 말하길, 아무도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맘 무슬림에 압바스 이븐 사뻬이 전승하는 선지자(ﷺ)의 말씀이다. <천국은 100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에는 땅과 하늘 만큼의 거리가 있으며 가장 높이 있는 천국이 이름은 페르도스이다. 이 천국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권자 아래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페르도스 천국에 들어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우사마 이븐 자이드가 전하는 바로는 선지자(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은 광명의 빛이며 궁전과 잘 익은 과일과 아름다운 배우자와 녹색의 대지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준비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께서 대답하사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와끼야 장 10-26 절에 천국에 대해 말씀하사<앞서는 자가 될 것이라 너희는 앞서는 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천국의 축복에 기거하노라 그곳에는 옛 선조들도 있으나 후세의 사람들은 소수더라 그들은 금으로 장식된 금좌에 앉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보며 기대니 영원히 사는 소년들이 그들 주위를 돌며 술잔과 주전자와 깨끗한 물 그리고 가득찬 잔들로 봉사하더라 그것들로 그들은 두통을 앓지도 취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취함에 따라 과일을 선택하노라 그들이 원하는 조류의 고기를 즐기며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며 잘 보호된 진주와 같노라 이것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무의하고 욕된 말들을 듣지 아니하며 단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라는 말만 듣더라>



## 지옥에 대한 묘사 The Description of Hell

지옥불 또한 주님의 피조물이다. 지옥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자를 위해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라흐만 장 43-44 절에 지옥에 대해 계시하사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거역한 지옥이며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니라> <그들은 타오르는 지옥불로 향하니라>(성 꾸란 사파트 장 68 절)<나에게는 그들을 묶을 족쇄와 타오르는 불이 있으며 질식시킬 음식과 고통스러운 벌이 있나니>(성 꾸란 무잠밀 장 12-13 절) <그 곳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 죄인들에게 해당된 각각의 문이라>(성 꾸란 히즈르 장 44 절)

## 지옥의 가장 가벼운 벌에 대한 묘사 The Description of the Lightest Punishment in Hell

부카리가 전승하는 바에 의하면 지옥에서 가장 가벼운 고문은 인간이 매우 뜨거운 석탄위에 맨발로 올라가 그의 뇌가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카리와 무슬림에서 아부 후레라는 선지자의 다음의 말씀을 전승한다. <아담의 자손들이 사용하는 불은 지옥불의 뜨거움에 비해 70 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지옥에게 말씀하사 다 찾는가 지옥이 대답하기를 아직 더 있습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의 몸을 삼키고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거주한다> 무슬림에 전승된 바는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기를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가 어디선가 매우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모른다고 답하였고 이에 선지자(ﷺ)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지옥의 돌덩이였는데 하나님께서 70 년전에 보내신 것으로 이제 지옥의 바닥에 막 도착하였다고 하셨다>. 타르메즈가 전하는 바로는 아부 우마마가 선지자(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승한다. <지옥의 거주자는 펄펄 끓는 물을 마시며 그 물로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될 것이며 피부는 떨어져 나간다. 끓는 물은 내장을 녹이고 내장은 항문으로 분출된다>

## 제 3 장

### 정명

하나님께서 성 꾸란 자리야트 장 56 절에 영마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사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피조물에 양식을 주시는 분은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진실된 숭배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완벽한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며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게 할 수 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적 체제를 벗어나면 존재하지 못한다. 물질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질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때로 일부 인간은 물질의 막대한 영향을 받아 정신세계인 내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 태어난 아기는 완벽한 본성을 갖게 되나 그 아기가 자라서 기독교인이거나 유태인이 되는 것은 부모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주신 본능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올바른 본능은 인간이 무신론이나 다신론 등의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안내한다. 하디쓰가 가르치는 바로는 인간은 신앙의 본성을 타고 났으나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는 것은 본능이 환경의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불신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을 운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불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실상 그가 처음부터 불신자로 운명지어진 것은 아니다. 불신은 인간의 올바른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악의 존재는 선의 존재와 반대되며 악행은 선행으로써 구별된다. 만일 악행이 사라진다면 선행도 그 의미가 없게 된다. 같은 공식이 복종과 불복종에도 해당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만 공평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종일 연구실에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연구실의 주인을 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해고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자 보상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창조이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다. 그 분은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실로 그 분께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질문받지 않으시다. 그 분은 원조자가 없으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감히 왜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습니까라고 묻지 못한다. 만일 피조물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는 일종의 호기심이며 인간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그 분을 숭배하는 것이다.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성 꾸란 자리야트 장 56 절)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의심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자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정명과 정명의 집행(Qadar and Qada)

하나님의 법과 법의 집행은 불가피한 질문중의 하나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철학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의 초석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일부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의 속성에 근거한 믿음 중의 하나이다. 우주의 어떤 것도 그 분의 지혜 없이 일어나지 못한다. 누구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불신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성 꾸란 까마르 장 49 절에 말씀하사 <하나님은 조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디쓰 무슬림에 전승되는 바로 우마르 이븐 알 카타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 정해 놓으신 법에 대한 믿음이다>

#### 정명과 정명의 집행에 대한 정의 Definition of Divine Will and Decree/ Qadar and Qada

파다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정명이다.

파다: 사건이 일어나게끔 명령하는 것이며 이 명으로써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파다르는 무엇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에 대한 조화의 법과 관계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미래의 사건은 조화롭게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사건 뿐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시간과 장소와 방법까지도 알고 계신다. 또한 행위자와 그 행위의 수단과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알고 계신다.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행위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파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다는 파다르의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조화로운 법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에는 어떠한 감소나 증가도 없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 유누스 장 61 절에 말씀하사 <천지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으니 그것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하나님의 광범위한 지혜는 우주의 모든 장소와 시대에 걸쳐 적용된다. 작은 구멍에 있는 개미에서부터 케도에 따라 돌고 있는 행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게 측정되어 설계된 체계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의 모든 구석 구석까지 미치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동쪽과 서쪽 그 어느 곳도 그 분의 법을 피할 곳 없다. 주님은 눈이 깜빡거리는 것 같은 작은 것까지도 모두 기록해 두셨다. 인간이 거울을 들여다 볼때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꾸밈없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주님의 권능과 의지로 창조된 것이다. 주님이야말로 선과 악,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 추운 것과 더운 것, 먹는 것과 단식, 대화와 침묵, 복종과 불복종, 바른 것과 그릇된 것, 눈의 깜박임과 속삭임 등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주에 있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은 주님의 권능과 의지로 창조되었으며 그 분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고 하니>(성 꾸란 사파트 장 96 절) <천지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은폐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 분의 의지에 따라 자궁 속에서 너희를 만드시니 그 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성 꾸란 이므란 장 5-6 절) 인간은 주님의 권능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약된 힘을

주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일단의 역할을 하도록 바라셨다. 인간이 인생이라는 식탁에 앉으면 여러 종류의 음식들 즉 믿음들이 그 앞에 제시된다. 인간은 어떤 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심지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마저도 그 자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 관점 1

인간은 인도되고 제약받는다. 인간은 행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때로는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자신의 제약능력 밖에 있는 것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궁을 택하여 생명을 얻게하는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정한 키와 모습을 주셨다. 주님은 인간의 키와 몸의 크기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주어진 생애 동안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제약이 안되는 것들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어떤 것이 갑자기 그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슬람 학자들은 정신이상자들은 하나님을 숭배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며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 요약

인간은 자기 힘의 범주를 넘는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통제의 범주를 넘는 사건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한다면 이에 커다란 보상을 주신다.

#### 관점 2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행을 강요하지 않으시다. 반면 선과 악에 대해 충고하시며 선행을 할 것을 장려하신다. 실로 그 분은 악행에 대해서는 엄한 경고를 하신다. 주님은 사람들을 인도할 성서와 계시문 뿐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셨다. 주님은 선지자와 성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며 악행을 일삼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을 준비하셨다. 성 꾸란 질 잘 장 7-8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티끌만한 선이라도 실천한 자는 그것이 복이 됨을 알 것이며 티끌만한 악이라도 저지른 자는 그것이 악이 됨을 알리라> 모든 이들은 자신의 행위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일꾼이 회사의 법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사장을 존경하면 보상이 따르나 게으르고 회사 법을 어기는 사람은 해고나 봉급의 감면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가지 다른 믿음과 길 중 하나를 이성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것으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성 꾸란 인산 장 3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길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인간이 감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정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선행과 악행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생각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리 행위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자비로우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서적 소개 Publication by Author

피끄흐 알 아툼마 알 아르바 <네 이맘의 이슬람 법>: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출판

마카나트 알 아임마 알 아르바 <선지자의 하디쓰에 따른 네 이맘의 견해>:  
저자의 스승 아비 알 하산 알 나드위(인도)님이 지도 아래 출판

알 칼리파 알 아우왈 <선지자의 첫 번째 교우 아부 바크르>

알 칼리파 알 타누 <선지자의 두 번째 교우>

이슬람의 사회 생활: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출판. 사회 생활과 더불어 개인과 사회 교육 측면에 대한 선지자의  
전통을 편집

꾸란을 암송하는 아름다운 기술: 인도에서 출판

무슬림의 인간교육-사도 무함마드의 가르침: 한국어 번역

신앙의 근본: 한국어 번역

사도 무함마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이전의 생활: 한국어 번역  
사도 이브라힘: 한국어 번역

이슬람 신앙 1: 한국어 번역

헤즈라 이전 메카에서의 사도 무함마드의 생활

무함마드의 헤즈라

꾸란과 꾸란의 편찬사: 한국어 번역

이슬람법의 근간: 한국어 번역

인간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의 본성

단식과 선지자의 순나에 따른 단식의 방법

네 이맘의 생애(아부 하니파, 말리크, 샤피, 에마드 이븐 한발리)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에 따른 기도문과 기도 방법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에 따른 자선과 자선 방법

꾸란과 선지자의 순나에 따른 성지 순례와 그 방법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한국어 번역

이슬람이 비무슬림을 대하는 법: 한국어 번역

이슬람은 나의 종교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

이슬람의 형제애

참고문헌과 인물 해설

1. 아부 하킴 사흘 이븐 무함마드 알 세흐스타니: 헤즈리 248 년 사망 시인, 언어학자, 바스라시 출생,

2. 알 키쉬리아: 조우 알 노운 알 마스리, 아부 알 파이단드 아부 파인, 토반 이븐 이브라힘 알 키마미 알 마르리 라고 불림. 신비주의자 철학자의 서구자으로 헤즈리 245 년에 사망, 이집트 누바 출생

3. 아비 알 하산 알 나드위의 <이란 제국>에서 선지자의 순나 발췌  
삼위일체: 셋의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성서에는 삼위일체설에 대한 언급이 없음.  
카톨릭 종교사전 101 쪽에 의하면 삼위일체설은 테롤리언에 의해 만들어짐

4. 압둘라 서라그: 이슬람 학자, 그의 저서 <천사들에 대한 믿음>

5. 영국 타임즈

6. 알 모아감 알 와셋

7. <영혼> 이븐 알 카임 알 코우자야 저 751 년 사망

8. 이슬람: 하나님의 종교인 이슬람은 평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이슬람은 특정민족의 종교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종교이다. 무함마드(ﷺ)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도일 뿐이며 하나님은 꾸란에 이브라힘과 다윗, 예수, 모세등 25 명의 선지자를 언급하신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이슬람이 무함마드의 종교이며 아랍인들의 종교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이슬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이다. 이슬람은 특정 인종을 선호하지 않고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슬람에서 선민사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이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전해온 주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믿음은 유일신주의다.

엘스와르: 이스라엘 천사에 의해 불려진 나팔이다.

알 안사르: 메디나의 주민들로 선지자의 하나님과 이슬람으로의 부름에 응답하여 메카로부터 이주한 주민들을 도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태인으로부터 예수를 도운

사람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유태인들의 음모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유일신 사상을 위해 순교한다.